

가을철 산불 비상대책 운영

남원시, 12월 15일까지... 지난달 17~18일 진화대 31명 안전보건교육 등 비상태세 갖춰

남원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청 및 읍면동은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평일 주말 근무조를 편성, 124명의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이 산불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미리 선발된 본청 진화대 31명은 16일부터 조기 사역하고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17~18일 안전보건교육, 산불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며, 20일부터는 산불진화헬기를 준비하고 헬기 및 계류장을

정비해 신속한 진화를 위한 진화장비, 진화차 등을 점검 비상태세를 갖췄다.

또한, 24시간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산불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을 사전 준비 중에 있으며, 중·대형 산불 발생 시 남원시, 소방서, 서부지방산림청, 군부대, 의용소방대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진화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에서도 산불대책운영본부를 자체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72명과 산상감시원 19명 등 총 91명 채용해 1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

며, 경로당 IPTV, 일반채널을 통한 공익영상 송출 주요 도로변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 현수막 등을 설치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관내 주요 산과 등산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특별한 사유(예외규정 해당)로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로부터 안전한 산림 남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산불 취약지 산불예방진화인력 102명 배치

임실군이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청 산림복지과와 12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 체제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102명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분산 배치해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 금지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가 인근 지역인 진안과

남원에 배치되어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백련산 등 주요 지점 4개소에 설치된 산불감시 카메라를 활용 산불감시 활동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불조심 깃발·현수막과 마을회관에 산불 예방 홍보판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소각 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물론, 소각 행위 취약 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소각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 시 읍·면 산불감시원에 배부된 산불 신고 단말기를 통해 산림청 산불상황관리시스템과 연계,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신고 체제도 구축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불감시반을 동원해 산불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최근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경주이씨 익재공과 후손, 운수지 1798년 필사본 임실군에 기탁

임실군이 지난 30일 임실을 감성리에 사는 이상호 씨에게 기탁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한 '운수지'는 1675년(숙종 1)에 신계정 임실현감의 지역의 한필상 이시연과 함께 편찬한 '운수지'와 1780년 설유태 등 8명의 유림들이 편찬한 운수지 2종을 필사해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상호씨(1964년생)는 경주이씨 익재공과 후손으로 대대로 임실을 감성리에 살던 가계이며, 최근 귀촌하여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다. 집안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에 나온 운수지 필사본을 임실군의 역사 문화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탁하게 됐다.

필사본은 기탁자의 8대조 이경환(李敬煥 1675~1885) 선생이 필사한 것으



경주이씨 익재공과 후손, 운수지 1798년 필사본 임실군에 기탁

로 작성 추정했다. 이경환 선생에 대한 족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자는 덕항(德恒), 호는 연빙(淵氷)이고 성담 송환기(宋煥箕 1728~1807) 문하에서 배웠다. 문학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절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고 기록하고 있다.

2023년 7월 1675년 운수지 교정본이 발견된 데 이어 1798년 필사본이 나타나면서 교정본이 낡고 헤져서 알 수 없던 글자나 문장 일부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17세기 사촌들지 운수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 민 군수는 "운수지의 출현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순창향교와 전북도 유형문화재인 객사 일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색다른 야간경관·추억 선사’

순창향교·객사, 아름다운 야간 명소로 거듭나

순창군이 순창향교와 전북도 유형문화재인 객사 일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해 10월에 마무리 되었으며,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신책로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민선 8기 현안사업인 역사 문화궤거리 및 포토존 조성사업과 이번 조성사업을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조성사업을 통해 순창향교 돌담길은 조명을 통해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개선되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보행로로 변화했으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인 순창객사는 은은한 분위기의 조명으로 아늑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는 문화재로 거듭나게 됐다.

아울러 군은 순창교와 교하교 하부에는 LED조명을 설치해 잊혀져 가는 순창의 옛 모습을 주제로 한 이미지를 조명으로 밝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경천변과 순창향교 일대가 순창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야간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창군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간경관과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현재 야간경관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몸과 마음의 힐링을 제공하고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이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실시

순창군은 최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순창 시니어 클럽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어린이·노인·다문화·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 생활, 교통, 보건, 자연 사회기반, 범죄 등 6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방법 위주로 진행되는 맞춤형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전북도청 보건안전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최고요 강사가 진행했으며, 노인분들의 골다공증, 낙상사고, 감염병, 교통 안전수칙 등 생활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최영일 군수는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기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 행정사무감사 연차회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최되는 제261회 정례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지난 10월 30일 연차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차회에서는 박광호 한 국지방자치연구원장이 미래를 위한 감사(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의하고 질의 시간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예방연습을 실시했으며, 상 위법령에 따른 남원시 조례 제정현황과 부서별 주요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해 분야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이번 연차회가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리라면서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의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남원시보건의소는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신경절을 따라 발진과 수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연령층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고 질병 이환 시 극심한 통증과 중대한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 및 증상완화를 위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내 중 70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953. 12. 31. 이전 출생자)이며, 접종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생백신은 무료지원, 사백신은 70%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생백신은 기존 국내에서 계속 사용되어왔던 백신으로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백신은 2회 접종으로 고가이지만 예방효과가 높고 지속 기간이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생백신 사백신 둘 다 과거 대상포진에 감염되었어도 접종이 가능하며, 어르신 폐렴구균이나 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과도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나 암환자, 기존에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을 했던 사람은 생백신 접종은 불가하며 사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 /남원=김기두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산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